

Contents

행사개요	-----	01
프로그램	-----	02
인사말	-----	03

[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 :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

좌장 권중돈 |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류진석 |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05

토론 김성한 |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

박정현 | 대전광역시의원 ----- 25

이연형 | 천양원 원장 ----- 27

이 용 | 대전일보 사회부장 ----- 31

김혜정 | 서울복지재단 연구부장 ----- 33

신현호 | 경기복지재단 네트워크사업팀장 --- 35

대전복지재단

2012 성과 & 과제 ----- 39

부 록 ----- 47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 행사개요 Overview |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

행 사 명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일 시	2012. 11. 1.(목) 14:00 ~ 16:20
장 소	대전복지재단 대회의실(9F)
주 최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홈페이지	www.dwf.kr

| 프로그램 |

Program |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I부 기념식	13:50~14:00	10'	식 전 행 사	성심원 (어린이 오케스트라 “소리향기”)
	14:00~14:45	45'	국민의례/내빈소개 대전복지재단 1주년 리뷰 영상 2012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 2013 사회복지사업 공모전 시상 감사패 전달 기념사(김화중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축사(곽영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격려사(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축하떡케익 커팅	진행 한기윤 (대전복지재단 사무처장)
휴식	14:45~15:00	15'	휴식 및 장내정리	
II부 토론회	15:00~15:20	20'	[발표]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장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0~15:25	5'	[토론] 김성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이연형 천양원 원장 이 용 대전일보 사회부장 김혜정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부장 신현호 경기복지재단 네트워크사업팀장	
	15:25~15:30	5'		
	15:30~15:35	5'		
	15:35~15:40	5'		
	15:40~15:45	5'		
	15:45~15:50	5'		
	15:50~16:20	30'		
폐회	16:20		폐회선언	

| 인사말 |

Welcoming Remarks |



김화중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곽영교 의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계 지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출범한 대전복지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사회복지계와 시민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은 주거환경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관련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재단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의 혼재로 인한 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출범 한돌의 걸음마 단계인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단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되는 ‘대전복지재단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여러 분야 패널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념식 및 토론회가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구현의 촉진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대전 복지재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2012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 :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류진석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2012 대전복지재단 1주년 기념세미나(2012. 11. 1)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 과제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시: 2012. 11. 1(목) 14:00-16:00
- 장소: 대전복지재단 회의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 jsryu@cnu.ac.kr

목 차

I

대전복지재단의 설립배경 및 목적

II

대전복지재단의 일반현황과 비전, 추진전략

III

대전복지재단의 추진사업 및 성과

IV

대전복지재단의 향후 과제

I. 대전복지재단의 설립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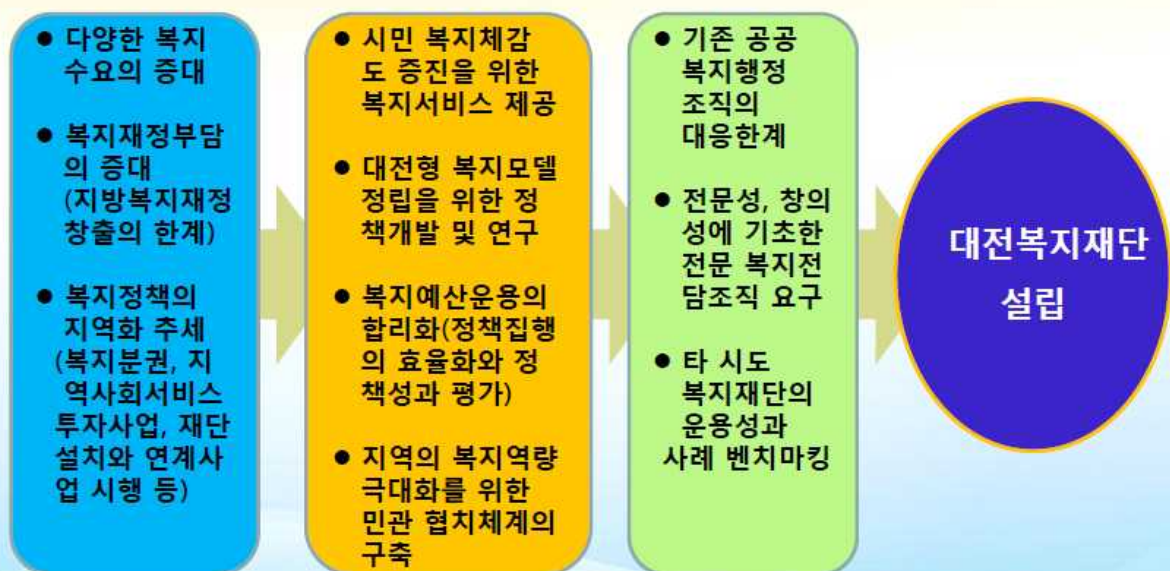
1. 대전복지재단의 설립배경

- 대전 복지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대전형 복지모델 정립 등 지역복지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조직 필요
 - 기존 공공복지행정조직의 경직성 탈피, 민간조직의 장점과 전문성 활용 필요성
-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자원간의 중개강화
- 복지정책의 지역화 추세와 복지행정의 투명성 제고
 - 지역형 복지서비스의 개발, 복지재단설치와 연계된 사업시행(예, 사회서비스 관리)
 - 지방복지재정 확대의 제약 등으로 정책집행의 성과개선 필요
 -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체계의 정립으로 투명성 제고
- 민과 관을 조정·연결하는 복지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민·관 협치의 허브기능 수행
 - 복지정책의 효율적·탄력적 집행과 복지공급자의 역량 제고
- 타 시도의 복지재단 운용성과 검증 및 재단설립 추세
 - 서울(2004), 부산(2005), 경기(2007), 2011년: 경북, 인천 등

1

I. 대전복지재단의 설립배경 및 목적

1. 대전복지재단의 설립배경



2

II. 대전복지재단의 설립배경 및 목적

2. 대전복지재단 설립의 추진경위

< 2010년 >

- 2010. 7월 : 민선 5기 공약사업 확정
 -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 협치의 대전복지재단 설립
- 2010. 8월 ~ 10월 : 타 시·도 벤치마킹
 - 복지재단 : 서울, 경기, 부산
 - 복지회관 : 충북, 인천, 전북
- 2010. 10월 :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재산, 조직, 인력 등 기본사항 정립
- 2010. 12월 : 제1차 공청회 개최
 - 12. 16(목), 시청 세미나실 / 130여명 참석

< 2011년 >

- 2011. 1월 : 대전복지재단 조례 제정계획 수립
 - 목적, 사업, 정관, 임원 규정 등 기본사항
- 2011. 2월 : 제2차 공청회 개최
 - 2. 23(수), 시 의회 대회의실 / 주관 : 김명경 의원
- 2011. 3월 :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확정
 - 3. 23(수)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3. 24(목) 대전복지재단 설립 자문위원회 구성

3

II. 대전복지재단의 설립배경 및 목적

< 2011년 >

- 2011. 4월 : 대전복지재단 조례제정(4.8)
- 2011. 4월 : 대전복지재단 설립포럼 개최(제3차 공청회)
 - 4.29(금), 하나은행 강당/ 주관: 대전사회복지협의회
- 2011. 6월 : 대전복지재단설립자문위원회 2차 회의
 - 6. 20(월), 대전시청 / 재단운영계획 및 정관 등 논의
- 2011. 7월 : 대전복지재단 발기인 총회 개최
 - 7.28(목), 이사장 선출 등
- 2011. 9월 : 대전복지재단 설립허가(보건복지부) (9.8)
- 2011. 9월 : 대전복지재단 2차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
 - 9.22(목), 대표이사선임 등
- 2011. 10월 : 대전복지재단 직원채용
- 2011. 10월 : 대전복지재단 등기 및 사업자 등록(10.18)
- 2011. 11월 3일: 대전복지재단 출범

4

I.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배경 및 목적

3.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 대전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 “새로운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관협치의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

▶ 복지서비스 통합화 + 민간화 + 전문화로 복지공동체 구심체 역할 수행

□ 대전복지재단 조례

: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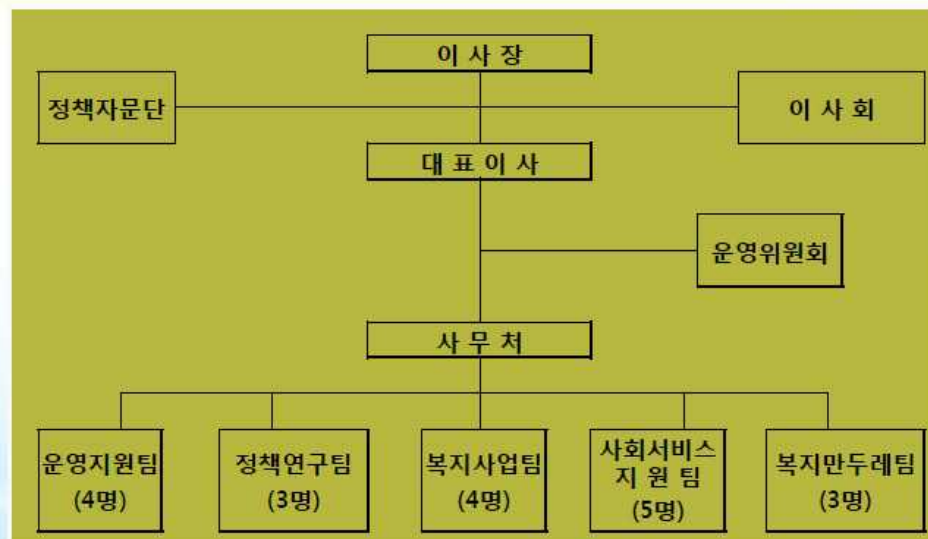
“변화하는 복지환경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대전형 복지모델 정립과 정책개발,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체계의 구축,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대전복지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민·관협치의 전담복지조직으로서 역할수행”

5

II. 대전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¹⁾

1. 일반현황

□ 조직구조: 1처 5팀(정원 21명)



1) 재단의 일반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대전복지재단(2012),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기초함.

6

II. 대전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

□ 주요 기능(조례)

- 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 ②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③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 ④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 ⑤ 대전사회복지회관 운영
- ⑥ 대전복지재단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⑦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 및 평가
- ⑧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⑨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II. 대전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

□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업무
운영지원팀	•예산 및 회계 업무 •이사회 및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운영 •대전사회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정책연구팀	•대전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연구 •대전시민 복지욕구 조사 •대전·충남 지역사회복지인력뱅크 조사 DB구축 •대전시 사회복지 정책 현안 연구
복지사업팀	•사회복지기관(시설)관련 교육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사회복지 단체와 연계한 복지지원 사업 •교육만두레 사업 추진
사회서비스지원팀	•지역주민 욕구기반의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체계적인 사업관리 통한 제공기관 지원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복지만두레팀	•복지만두레 운영자 역량강화 및 시민학교 운영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 운영, 위기가정 지원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 및 사회봉사단 운영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8

II. 대전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

2. 비전, 미션 및 추진전략



9

II. 대전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

[참조: 주요 복지재단의 비전 및 미션]

구분	기관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미션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선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구현	'선진복지도시-부산' 구현
비전		찾고 싶고, 일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고객만족 1위 복지 허브기관	대한민국의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	•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력 높은 정책연구개발기관 • 선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의 종합적 지원기관 • 사회복지 저변확대와 전문화 향상을 위한 복지인적자원개발/지원기관 •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복지 향상을 추진하는 복지거버넌스 주도기관
전략방향		• 선진복지정책 연구강화 • 복지품질관리 고도화 • 복지전문역량강화 • 창의적 복지서비스 확대 •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현	• 경기도 복지정책의 Think-Tank 기능강화 •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지원 확대 • 전문복지인력 양성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 네트워크 및 사회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한 복지 지원체계 확립	• 연구개발: 연구개발의 네트워크 기반조성, 지역접합형 사회복지 정책개발 등 • 인적자원개발/지원: 복지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강화 등 • 심사/평가: 복지서비스 기준 개발 등 • 교류지원: 다양한 복지주체와의 체계적 교류활성화 등

10

II. 대전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비전, 추진전략

3. 단계별 추진전략



11

III. 대전복지재단의 추진사업 및 성과²⁾

1. 2012년 주요 추진사업

1)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 사회복지 현황파악 및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시민복지욕구 조사 : 지역별, 대상별 복지수급현황, 복지체감도 등
 - * 주기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 시계열적 변화 추이 파악 및 정책의 효과성 검증 / 1,200가구 설문완료
- 지역사회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사회복지인력 DB구축
 - 국·내외 사회복지연구동향 분석

2)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나눔문화 확산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 10개 동아리 140명
 -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모임 정례화
 - *단체장(분기1회), 사무처장(격월) ⇒ 의견·정보 교류 등 소통 강화
-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화합분위기 조성
 -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 (2012. 9. 12) 지원
 - 사회복지 단체·시설 방문 소통 / 31개소
- 한밭나눔대축제(10.6) : 「나눔+섬김+상생」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대축제 개최

2) 재단의 2012년 주요 추진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전복지재단(2012),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기초함.

12

Ⅲ. 대전복지재단의 추진사업 및 성과

1. 2012년 주요 추진사업

3)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의 전문성 증진

-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과정 운영 : 5개 분야 350명
 - 사회복지 단체, 시설근무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대상
- 복지경영 CEO과정 운영 / 9~11월(9. 4 개강)
 - 사회복지관련 CEO, 시의원, 공무원 등 30명(충남대 위탁)
-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추진 준비
 -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선진화 유도

4)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대전형 전달체계 모형 도출을 목표로 연차적 연구
 - 금년에는 공공전달체계 과정을 집중 연구
 - *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희망복지지원단) 정착을 위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 내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부지역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자활(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분야 등 / 효율적 운용
 - * 자활분야 1억 7천만원(4건), 노인복지분야 45백만원(2개단체) 지원

13

Ⅲ. 대전복지재단의 추진사업 및 성과

1. 2012년 주요 추진사업

5) 복지만두레의 안정화·활성화

- 구·동 복지만두레 역량 강화
 -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 확충 / 17개 동 34명→30개 동 60명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공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77개 동 83개 사업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시스템 강화
 - 「복지재단 + 구 희망복지지원단 + 공동모금회」 협조체제구축 / 24명 1,560만원 지원
- 복지만두레 사회봉사단 운영
 - 대학생 사회봉사단 연합회 구성 운영 : 7개 대학 15개 단체 200여명
 - 외국어고등학교, 남대전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 2개 학교 22명
- 효율적인 교육만두레 사업 추진
 - 미취업 지역대학 졸업자를 사회복지관에 학습지원교사로 배치(22개소 100명)
 - * 저소득층 초·중학생(600명) 대상 국·영·수 교육(월 40시간)
- 전반적인 복지만두레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자율적 시민조직으로 재탄생

14

Ⅲ. 대전복지재단의 추진사업 및 성과

1. 2012년 주요 추진사업

6)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의 효율적 관리
 - 지역특성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3건)
 - 기존 사업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 34개 사업 103개 제공기관
- 우수사례 발굴 홍보
 - TJB “생방송 투데이” 출연, 거리캠페인, 뉴스레터 제작(매월) 홍보

※대전시 위탁사업

▶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추진

- 대전역 주변(삼성동, 원동, 정동) 쪽방생활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추진 / 241가구 251명
 -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 도배(87세대), 장판(80세대), 창호(49세대), 판넬·단열(11세대), 지붕누수(15세대), 전기보수 등 기타(6세대)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욕구조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현재 128명에 대한 밀착형 통합사례관리 / 유급 자원봉사 사례관리자 활용(2명)

▶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에 관한 연구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15

Ⅲ. 대전복지재단의 추진사업 및 성과

2. 2012년의 주요성과

1) 복지재단의 조직체계 구축 및 사업 기반조성

- 재단출범 후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는 무엇보다도 재단의 조직기반 정비와 사업기반 조성
 - 팀별 업무분장 및 주요사업의 추진으로 조직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의 재단으로 업무이관 등
- 복지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사항의 일정부분 해소
 - 복지재단의 조직체계 및 추진사업을 통해 기존의 우려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 재단설립 시 우려사항
 - 기존 공공복지 행정조직 외에 새로운 민간 간접 조직으로 ‘옥상옥’, 또는 ‘새로운 권력기관화’가 될 가능성, 기존 민간조직의 기능과 중복
 - 복지만두레 연착륙 위주의 재단활동 수행 등

16

Ⅲ. 대전복지재단의 추진사업 및 성과

2. 2012년의 주요성과

2)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지역복지현안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 및 지원기능 수행
 - 복지욕구조사, 쪽방지역 실태분석, 전달체계분석 등
 - 지역사회서비스의 사업발굴 및 운영지원

3) 지역복지분야의 민·관/민·민 협치기능 수행

- 대전시의 위탁과제(예, 쪽방지원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계획 수립)의 수행 및 지자체 복지이슈에 대한 대응
- 민간복지분야의 역량강화 지원
 - 사회복지인력의 전문교육, 사회복지대회 지원, 나눔축제의 주관 등
 - 지역중심복지조직(만두레)의 역량강화, 민·민협력사업의 수행 및 제안사업 공모 등

17

Ⅳ. 대전복지재단의 향후 과제

1. 복지재단 역할의 공감대 확산 및 정체성 정립

-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한 지역복지계 및 시민사회의 공감대 확산 노력 증대
 - 시민사회, 언론, 지역복지계, 복지수요자 등 재단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복지행정의 합리성, 복지정책의 과학화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시민복지체감도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등 지역복지역량의 정합적 관계형성
-
- 복지재단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기능 강화
 - 복지수요자, 실천현장,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 및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
 - 대전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업무의 전문성 증진 노력
 - 업무의 전문성은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위부여와 직결된 사항이며, 민간복지영역과의 정합적 관계 설정을 위한 토대

18

IV. 대전복지재단의 향후 과제

2. 복지재단의 정책기능 및 민간복지 지원기능의 강화

- 복지재단: 복지행정의 전문화,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 개발, 대전형 복지모델의 정립 등
- 민간조직: 직접 서비스 제공, 민간복지분야의 독자적 전문영역, 민간복지역량 제고 노력 등

-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기능의 강화
 - 대전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로드맵 구축
 - 연구성과의 정책반영도 제고 및 정책연구팀의 확대개편 필요

※ 복지재단의 기능강화와 별도로, 공공부문으로서 대전시의 책임성 축소나 책임전가가 되어서는 안됨. 오히려 이와는 달리 공공의 역할강화는 필수적임

- 복지재단과 민간조직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 강화
 - 민간복지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원, 협력사업의 추진 등

19

IV. 대전복지재단의 향후 과제

3.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구축 : 민·관/민·민협치의 새로운 모델형성

- 대전복지의 새로운 전달체계로서의 복지재단 역할 강화
- 대전복지의 역량극대화를 위한 지역복지네트워크 또는 민·관협치 기능의 중심체 역할 및 허브 기능 수행
- 복지재단 내 조직(팀)간 협력 강화
 - 정책, 사업, 만두레,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간의 유기적 협력 및 의사결정 모델 정립으로 재단의 대내외적 활동 강화

- 일반적으로 재단의 특성상 공적 지원에 기초한 출연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완전히 유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예: 재정지원, 사업계획서의 승인, 결산서 제출, 재단업무 감독 등)
 - 재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과도한 행정간섭의 배제 → 재단 고유사업의 개발 및 추진
- 재단운영의 목적과 방향이 시민 및 공공이익, 특히 복지수요자의 권리확대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비판과 견제역할 필요(지역복지계 및 시민사회의 역할)

20

IV. 대전복지재단의 향후 과제

4. 장기적 · 종합적인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천

- 복지재단의 중장기적 추진전략 및 수행과제의 개발
- 복지재단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제의 확립
- 지역복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로드맵 작성
 - 시설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 기준, 서비스 표준화 기준 등 설정
 - 공공분야 사회복지인력의 전문능력 배양
 - 재단추진사업의 성과달성, 위탁사업의 범위와 시기 등에 관한 실천지침 마련



대전복지재단 → “지역복지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복지현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으로 발전

감사합니다

2012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 :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 **김성한** |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현 | 대전광역시의원

이연형 | 천양원 원장

이 용 | 대전일보 사회부장

김혜정 | 서울복지재단 연구부장

신현호 | 경기복지재단 네트워크사업팀장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성한(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년 정도면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데,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할 정도로 대전복지재단은 매우 의욕이 넘치는 것 같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복지서비스 선진화와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발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부산복지개발원은 개원 2주년이 되어서야 ‘일류복지도시 부산을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처럼 타 지역 복지재단은 특정 주제(사회복지인증, 기업사회공헌, 지역사회복지 패러다임)를 가지고 개원 기념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한 반면, 대전복지재단은 출범 1년 만에 대놓고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자고 나섰으니 말이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덕담을 하자면, 이 정도 열망이라면 굳이 따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앞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과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선불리 할 수도 없다. 특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것인지, 평가의 대상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평가를 통한 실익은 줄어든 수밖에 없다. 나는 대전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세 번의 공청회 중 두 번의 발제를 했던 입장에서, 대전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 그 때 제기되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대전시와 관계된 것이고, 어떤 부분은 대전복지재단과 관련된 것이다. 대전복지재단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대전시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알다시피 대전복지재단의 출연기관은 대전시이고, 재단운영비나 사업비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대부분 대전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평가에서 대전시 부분을 도외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을 전제로 했을 때 고려할 점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¹⁾

첫째,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싱크 탱크(Think Tank)인가, 복지만두레 구축, 유지인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리 및 평가인가?

둘째,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규모, 조직, 인원, 예산 등이 적절한가?

셋째, 독립성, 민주적 운영,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넷째,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섯째, 기존의 민간 협의 조직과의 역할 중복을 피하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관련자의 참여와 동의, 관심의 증대와 확산이 필요하고, 옥상옥이 아니라 마중물

1) 김성한. 2010. “대전복지재단 설립, 그 의미와 과제”. 『대전복지재단 설립 공청회 자료집』. 대전광역시, pp.15-21.

김성한. 2011. “대전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바람직한 방안 모색”. 『시민공청회: 바람직한 대전복지재단 설립 방안 자료집』. 대전광역시의회, pp.1-19.

이 되어야 하며, 조직 간 단순한 역할 이관처럼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복지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력과 예산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때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²⁾

첫째, 복지재단 없이 불가능한 것인가? 기존의 행정 체계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일차적으로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과 조정 기능이 우선이겠지만 복지시설의 관리 및 지원 기능, 직접 사업 수행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조직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과정의 투명화, 객관화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조직들과의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직원들의 안정적 지위와 보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기초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대전복지재단은 설립된 지 갓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두 평가하기도 어렵고,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내리기 어려우므로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평을 한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첫째, 대전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를 위한 조직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과 조직 구조를 보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조에서 복지만두레운영위원회가 삭제되고, 별도 조직처럼 구상되었던 복지만두레센터가 다른 팀과 병렬하여 복지만두레팀으로 위치 지워진 것은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투입 예산만 보더라도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단 설립 계획 초기 시 제시된 연간 운영 예산 10억원(사회복지회관 운영비 포함)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를 거쳐 22~24억으로 증액하여 출범하였고, 2012년 현재 약 46억 4천만 원으로 늘었다.³⁾ 참고로 2010년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의 예산은 약 84억, 경기복지재단은 약 56억원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 규모라고 할 수 있다.⁴⁾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평가 기간을 설립 이후가 아니라 굳이 설립 계획 시부터 공청회를 포함한 설립 과정까지 포함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진행 과정이 앞으로 대전복지재단의 과제를 모색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중 관련자의 참여와 동의, 관심의 증대와 확산, 의견 수렴 등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설립 1년을 지나는 지금은 오히려 설립 이전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결과만 중시하는

2) 대전광역시. 2010. 『대전복지재단 설립 공청회 자료집』, 대전광역시의회. 2011. 『시민공청회: 바람직한 대전복지재단 설립 방안 자료집』.

3) 물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 위탁 사업인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과 복지만두레 관련 사업 때문이다.

4) 하지만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

경향이 있다. 공청회 개최 여부는 중요시하면서 정작 공청회 때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거나, 반영되더라도 이를 평가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요식적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를 당연하다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인정해야만 의견 수렴 과정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비록 대전복지재단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복지만두레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 운영 사업’,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 사업’, ‘복지만두레 러브투게더 사업’,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전형 복지 모델로서 복지만두레 및 복지만두레 관련 사업들을 단순히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복지만두레가 진행형이지 완성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결과물에 치중해서 평가하려는 경향이다.⁵⁾ 따라서 복지만두레가 대전형 복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이를 위해 체계적,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만두레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편향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획을 전제로 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팀별로 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연구팀이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기획 기능을 한다면, 복지사업팀, 복지만두레팀, 사회서비스지원팀도 사업 수행의 역할 뿐 아니라 기획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업이 중심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는 클 수 있으나 단편적, 일회적, 행사성 사업이 될 소지가 있고, 장기적 비전은 소홀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일들을 대전복지재단에 다 맡길 것도 아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할 일, 민간 협의조직에서 할 일, 그리고 이 두 조직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과 대전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향후 과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전복지재단이니까, 대전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모색하고,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결국 대전복지재단의 과제는 기획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 속에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바로 이 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대전복지재단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과제이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이다. 대전복지재단은 과연 무엇을 집을 것인가?

5) 복지만두레에 대한 자조적인 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 행사성, 동원성, 새마을 운동과 같은 하향식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냉소, 토대 침식 등의 부정적 요인이 미치는 타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

박정현(대전광역시의원)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대전복지재단에 거는 기대와 방향성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편」

이연형(천양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 먼저 대전복지재단 설립 1주년을 축하한다. 나는 작년 4월 29일 대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대전복지재단 설립 관련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전복지재단 설립추진 배경과 목적으로 지목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관협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위해 재단설립의 당위성이 있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우리 복지인들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사회복지회관」마련을 통하여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비전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을 실천하려는 대전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바 있다.

○ 아울러 복지계에서는 주제발표자, 류진석 교수의 지적처럼 재단설립의 타당성, 업무의 중복성, 운영의 독립성과 실효성, 그리고 복지만두레 운영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었다.

○ 보통 연극의 4대 요소란 연극 대본인 희곡, 대본에 의해서 연기하는 배우, 배우가 연기하는 장소인 무대, 그리고 배우의 연기를 관람하는 관객이라고 설명한다. 이 4대 요소가 하나가 되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연극은 훌륭했고 성공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극배우는 연기의 환경인 무대가 좋고 거기에 관객들로부터 열화 같은 갈채를 받으면 엔돌핀(endorphin)이 분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여배우 최정원씨는 관객들이 열광하면 이보다 4,000배나 높은 감동의 호르몬인 다이돌핀(didorphin)이 솟는 희열을 느낀다고 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재단 1주년을 짚어보고 싶다. 설립 목적에 충실했는가 복지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얼마나 반영 되었는가를 진솔하게 점검하여 개선해야할 점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이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정연한 논리와 근거로 설득해주어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2. 사업실적 돌아보기

대전복지재단은 기본재산 88억원, 2012년 예산 46억원, 1처 5개 팀에 21명의 실력있는 직원들로 조직된 명실상부한 튼튼한 재단으로 출발했다. 더욱이 재단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진에는 경륜있는 각계분야의 훌륭한 인물들과, 오랜 교수직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탁월한 복지 마인드를 가진 김화중 이사장으로 포진한 대전

복지재단은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 규모가 훨씬 크고 앞서 출범한, 부산이나 경기보다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5개 팀별 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재단에서 지난 9월 21일 2013년 사업계획 설명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와 시민 복지 욕구 조사, 복지인력 DB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인력의 전문성 증진,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복지만두레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을 추진한 점들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본 토론자는 주제발표자가 2012년 성과로 소개한 3가지 중, 3번째인 지역복지분야의 민·관/민·민 협치 기능수행으로서 대전시의 3가지 위탁과제, 즉 1) 쪽방촌 지원사업,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계획수립, 3)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지자체 복지이슈에 대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염홍철 시장께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창안한 복지만두레 사업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1사 1동 복지만두레 결연 사업”을 이루어 낸 것도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고 지적하고 싶다.

3. 우려되는 문제점들

주제발표자는 2012년 첫 번째 성과를 소개하면서 재단 설립시 우려사항으로 표출되었던, 기존 공공복지 행정조직 외에 새로운 민간 간섭조직으로 ‘옥상옥’, ‘새로운 권력 기관화’가 될 가능성, 기존 민간 조직의 기능과 중복, 그리고 복지 만두레 연착륙 위주의 활용 문제가 거론 되었으나,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전의 D일보 우세영 기자는 그의 지난 3월 14일자 비판 기사에서 “염홍철 시장의 공약에서도 복지재단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 정책 연구 개발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조직은 △운영지원 △정책연구 △복지사업 △사회서비스지원 △복지만두레 등 5개 팀으로 구성, 정책이 아닌 관리 지원이나 단위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또 단위 사업도 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위임 사무나 대전시 위임 사무가 주를 이루고, 예산의 절반 이상이 위임 사무의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재단 설립 취지의 중심인 정책 분야는 3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팀이 전부다.”라고 혹평했다. 출범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단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점에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귀 담아 들을 점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재단의 방향성과 문제 점 몇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방향성

나는 우기자의 비판 중에서 “복지재단이 국가위임 사업이나, 대전시 위임 사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꼬집은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급랭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계도 “어닝쇼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에 두고 각 후보들이 내놓는 복지 공약들은 장밋빛 보편적 복지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자면 공공복지의 조직과 예산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경직된 공적조직으로는 유연하게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 공적 부조를 탄력 있게 보조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대안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재단은 대전시의 공적 부조를 보조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주고,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은 침해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둘째 문제점(2012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 1) 사회복지 자원네트워크 구축은 대전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 2) 나눔 대축제는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하거나 협의회가 시행하고 있다.
- 3)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과정 운영문제도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당연하겠으나, 민간 시설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은 협의회나 복지사협회가 맡아야 하는데 재단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단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 민간단체의 교육 기능은 마비상태가 되고 있다.
- 4) 3년 마다 시행하는 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한사협을 통해서 시행하는데, 그 산하 조직이라 볼 수 있는 대전시는 100%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대전협의회는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러므로 일정부분 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 5) 사회복지서비스 시행에 있어서도 재단은 직접 서비스 시행은 지양하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자원 지원기능만 해야하겠다.

4. 맺는말

김화중 이사장은 재단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대전복지재단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대전시민의 복지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 관 협치와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 통합화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복지인력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지향합니다.” 라고 재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했으나, 이러한 내용 중에는 민간 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내용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전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계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복지 시나리오를 잘 쓰고 잘 연출하여, 객인 모든 복지인들과 시민들로부터 갈채와 환호를 받는 재단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 과제-토론문

이용(대전일보 사회부장)

대전복지재단은 출범 1주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대전지역 복지 서비스의 좌표를 새로 정립하고 정책 연구 부문,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복지만두레 사업의 활성화,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협력 모델 정립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런 성과는 향후 대전복지재단의 방향 정립과 대전복지모델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도 주요한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 추진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추진 기반 속에서 앞으로 대전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생각되며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와 제언성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류진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전복지재단의 과제는 그 역할의 공감대 확산과 정체성 정립, 정책 기능과 민간 복지 지원 기능의 강화, 민·관 및 민·민 협치의 새로운 모델 형성, 장기적인 전략, 추진계획의 정립과 실천 등에 있다는데 공감하며 현재 대전복지재단은 태동기에서 안정기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전복지재단은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방향성을 구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전복지모델의 정립과 실현을 통해 대전복지서비스의 거점이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복지재단의 정체성 확립, '현장성'에 기반을 둔 복지 서비스의 역할, 기능 강화와 이를 위한 안정적인 체계 구축, 정책 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부문의 싱크탱크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복지재단의 운영 현황과 체계를 보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 교수님께서도 재단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및 운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과도한 행정간섭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재단 고유사업의 개발, 추진을 방안으로 제시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대전시의 간섭과 관여가 배제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재단이 스스로 독자성을 확보하며 대전시와 협력적 수평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다 견고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류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재단의 주요한 특징은 공공기관과 복지 현장(수요자)의 중개 기능을 지닌다는 점과 정부나 자치단체와는 달리 복지 서비스의 일선에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현장성을 내재하고 있는 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현장성에 기반을 둔 복지 정책의 연구와 수립, 복지 수요 발굴과 추진 등이

큰 강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현장 소통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의 조직 구조상에는 정책자문단이 운영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고 각 복지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도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현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보다 상시화된 현장 여론 수렴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는 복지 정책 수립 추진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정체성 정립의 방안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복지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정치권과 정부는 복지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과 그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지 지원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짜여진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대전형 복지 모델의 구축을 꾀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대전이라는 도시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복지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앞으로 대전복지재단에 주어진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복지정책 및 사업, 자치단체의 독자 복지정책 등 정부와 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와 주요 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대전지역에서의 복지 중복과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 또한 재단의 역할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복지재단의 향후 정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한 제반조건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이제 한돌을 맞은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정책개발 기능강화 중심으로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2011년 11월3일에 출범하여 2012년에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를 비롯하여 연구동향분석, 사회복지전문가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

대전복지재단의 향후과제를 살펴보면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미 타시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복지재단과 마찬가지로 대전복지재단도 Think Tank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연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 대전복지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개발되고 복지시설의 역량강화 등과 같은 실천적 연구가 진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의 질(Quality)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하여 복지재단이 연구원이 아니고 부서 또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환경은 열악하다. 연구직으로 채용되었어도 연구 외 행정업무(세부사업 건당 지출계획서 작성, 시의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와 타부서 또는 팀사업 참여 등 그만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복지현장으로부터 연구의뢰는 증가해서 2~3년 근속 이후 대부분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연구전담인력의 이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결론적으로 연구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많으나 2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우선적으로 일정 규모의 연구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대전복지재단은 2012년에 3명의 연구전담인력이 7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과제별 규모는 다르다 하더라도 1인당 평균 2.5개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연구 질(Quality)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듣게 한다.

대전복지재단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정책현안 연구,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연구, 기초통계자료 구축연구로 구성되리라 예견된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연구기능이 팀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나 실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개발되는 재단의 브랜드사업에 따라 조직규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당장 재단 전체 팀을 부단위로 재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2013년부터라도 연구 외 업무를 분석하여 직위별 연구수행과제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규모가 확대되기를 바

란다. 그리고 대전시로부터 위탁되는 수시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추가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과제 개발 및 선정에서부터 다양한 참석자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원이 아닌 복지재단의 연구는 무엇보다 활용도 제고에 강점을 가져야 한다.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및 연구동향분석 등을 기초로 차기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수행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고는 무용지물인 연구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과제개발을 위해 대체로 재단 홈페이지나 시, 학계, 현장에 연구제안서를 받아 연구원들이 검토하거나 개별적으로 연구동향 등을 검토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동적인 자체연구과제개발은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이 어렵고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발생하여 당초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민, 학계, 시, 시의원, 복지현장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원탁회의를 갖고 선정된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재단의 연구기능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향후 우수인력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정책연구의 경우 시 및 시의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시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대전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재단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정책활용도가 높아야 한다. 이는 경영평가 등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연구의 결과물은 예산편성기간 내에 도출되어야 한다. 때문에 재단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가 1년 단위로 편성되기보다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과제와 1년 단위의 장기과제 등으로 적절히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외 정책동향 및 이슈를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여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리포트를 발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설립될 때와 마찬가지로 대전복지재단의 경우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이미 설립된 복지재단들은 현재 복지서비스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고 있다. 대전복지재단 역시 관과 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및 시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면 재단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토 론 문

신현호(경기복지재단 네트워크사업팀장)

■. 먼저,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년이라는 짧은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발자취를 “1주년 성과 및 향후과제” 발제내용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대부분 1년 정도는 젖을 먹고 자라는데 대전복지재단은 최고의 이유식과 건강식을 주메뉴로 하여 속성으로 성장한 듯합니다.

■.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복지체감도 향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복지재단의 필요성

- 최근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음.
- 따라서 대선 후보들도 선거공약으로 복지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거론하며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급증과 재정수입의 악화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자원마련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음.
-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기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대전복지재단 등)
- 발제자께서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대전복지재단도 이러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설립목적과 주요기능들을 잘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복지재단 설립 한 돌을 맞아 대전시민들이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지 않을까 싶음.

■. 대전복지재단 설립 1주년 사업성과에 대한 토론

- 본인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사업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복지재단의 복지사업팀의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복지사업팀은 직원 4명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업무, 사회복지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 등 경기복지재단의 3개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1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음.

- 사업량에 있어서도 4명의 직원이 1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에 비해 과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멀리보고 가야하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직원들이 먼저 소진되어 조직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됨.
-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복지시설 평가업무는 복지부의 법정 사업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나 광역지자체에 복지재단이 있는 경우 복지재단에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인증업무의 경우 지자체의 독자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고비용 저효율 사업으로 지역 내 많은 복지시설 중 특정기관만 인증을 해줌으로써 수혜받지 못한 기관입장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불만이 다수일 경우 민원으로 연결되어 현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됨. 만약에 인증업무를 꼭 하게 된다면 현장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가 필요하고 또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 시 평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음.
- 사회복지종사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종사자처우개선과 함께 꼭 필요한 역점사업으로 현재는 몇 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교육수요와 욕구는 증가할 것이라 여겨짐. 따라서 교육과정 선정이나 운영은 현장의 다양한 욕구 파악을 통해 기존의 사회복지단체의 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직능단체와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교육전문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음.
-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사업의 경우 대전의 대표 복지 브랜드가 『복지만두레』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육과 관련 사업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 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청소년 교육복지사업 운영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음. 이 사업은 지역사회 종교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육양극화 해소와 빈곤대물림 방지를 목적으로 매일 방과 후에 학원식 학습지원과 정서지원, 복지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종교기관이 교육 장소제공과 학생지도 자원봉사 교사지원, 프로그램전담 유급간사 배치, 사업운영비용 부담 등 사회공헌 사업임. 복지재단에서는 운영기관을 발굴하고 사업컨설팅, 운영매뉴얼 제공, 운영기관협의회구성 및 분기별 운영, 연합여름캠프, 연합 비전콘서트 등을 지원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최초 개설할 때 장비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 1회 지원으로 그치고 있음.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내 7개 지역에서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계속 확대하고 있음. 운영기관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들지만 반응도 좋고 참여 학생들의 학습태도 변화나 성적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저소득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정서지원, 복지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면서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참여하는 민간기관(종교기관)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원봉사 교사들도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여 봉사함으로 자아실현과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에 감동을 얻음.

■. 대전복지재단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 발제해주신 교수님께서 제언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함. 복지재단은 대전시와 사회복지현장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시의 감독과 시의회회의 행정감사 등 수시로 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으로 부터는 견제와 평가 등을 받으며 입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음. 그렇다고 지원하는 시나 시의회에 대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또 사회복지현장에 푸념할 수도 없는 조직이 복지재단의 입장임.
- 따라서 감독기관인 대전시는 복지재단에 대해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과제선정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감독이 아닌 항상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동행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봄.
-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은 엄연한 독립된 법인기관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간섭을 배제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줘야 한다고 봄.
- 사회복지현장은 재단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고 이해 당사자로서 상호 신뢰와 지속적인 소통노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복지재단은 지원과 감독하는 시 관계자와 재단의 존재 목적인 사회복지 현장의 중간 지대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지역복지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복지현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 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함.

이외에도 토론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2012

대전복지재단의 성과 및 과제

1 대전복지재단의 성과 및 과제

2 대전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2.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의 전문성 증진
4.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5. 복지만두레의 안정화·활성화
6.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시 1)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 추진

위탁 2)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에 관한 연구

사업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수립

3 대전복지재단의 향후과제와 역할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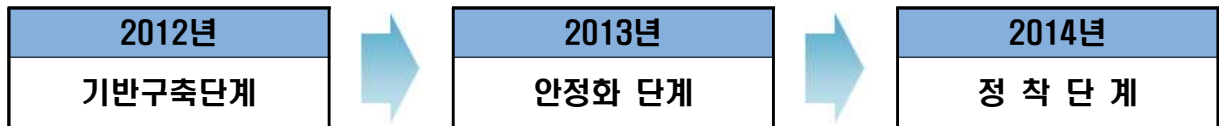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2012

대전복지재단의 성과 및 과제



① 연도별 추진 전략



② 주요성과

-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시민 복지욕구조사, 복지전문가 DB 구축
-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10개 동아리 140명), 기관·단체·시설과의 소통 강화, 나눔축제 개최 등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의 전문성 증진
 - 복지경영 CEO 과정(30명),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5개과정 708명), 사회복지 시설 평가(32개소) 등
- 복지만두레의 안정화·활성화 추진
 -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 확충(17동 34명→30동 60명), 복지만두레 학생 사회봉사단(9개 학교 222명), 교육만두레(22개소 100명)
-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 추진(대전역 주변 241가구 251명)
 - 주거환경 개선 : 도배, 장판, 창호, 지붕누수, 판넬·단열, 공중화장실 정비
 -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수행, 한글교실, 치과, 밑반찬 제공 등

③ 향후과제

-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협조자, 지원자, 연결자
- 관련 기관·단체와의 역할분담 등 협조체제 강화

2012

대전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①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 사회복지 현황파악 및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시민복지욕구 조사 : 지역별, 대상별 복지수급현황, 복지체감도 등
 - * 주기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 시계열적 변화 추이 파악 및 정책의 효과성 검증 / 1,200가구 설문조사 완료(분석 중)

○ 지역사회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사회복지전문가DB구축 ⇒ 정책연구, 위원회 구성 등 활용(민간 공동)
- 국·내외 사회복지연구동향 분석 ⇒ 학술지, 연구논문 등 1,227편

②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나눔문화 확산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 : 10개 동아리 140명
- 사회복지회관 입주단체모임 정례화
 - 단체장(분기1회), 사무처장(격월) ⇒ 의견·정보 교류 등 소통 강화

○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화합분위기 조성

- 사회복지대회 (2012. 9. 12) 지원
- 사회복지 단체·시설 방문 소통 / 31개소

○ 나눔축제(10.6) : 「나눔+섬김+상생」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대축제 개최

③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의 전문성 증진

○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과정 운영 : 5개 과정 708명

- 사회복지 단체·시설근무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대상

- 복지경영 CEO과정 운영 / 9~11월(9. 4 개강)
 - 사회복지관련 CEO, 시의원, 공무원 등 30명(충남대 위탁)
- 사회복지시설 평가(법정평가)
 - 사회복지관 등 총 32개소 / 2012. 6~7월(1개월간) 현장평가 실시
-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추진 준비
 -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선진화 유도

4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대전형 전달체계 모형 도출을 목표로 연차적 연구
 - 금년에는 공공전달체계 과정을 집중 연구
 - *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희망복지지원단) 정착을 위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자활(기초생활보장)·노인복지·장애인복지 분야 등 / 효율적 운용
 - 자활분야 1억 7천만원(4건), 노인복지분야 45백만원(2개단체) 지원

5 복지만두레의 안정화·활성화

- 구·동 복지만두레 역량 강화
 -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 확충 / 17동 34명→30동 60명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 77개동 83개 사업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시스템 강화
 - 「복지재단+구 희망복지지원단+공동모금회」 협조체제구축 / 24명 1,560만원 지원
- 복지만두레 사회봉사단 운영
 - 대학생 사회봉사단 연합회 : 7개 대학 15개 단체 200여명
 - 외국어고등학교, 남대전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단 : 2개 학교 22명
- 효율적인 교육만두레 사업 추진
 - 미취업 지역대학 졸업자를 사회복지관에 학습지원교사로 배치(22개소 100명)
 - 저소득층 초·중학생(600명) 대상 국·영·수 교육(월 40시간) / 보수 월 100만원
- 전반적인 복지만두레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자율적 시민조직으로 재탄생

⑥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의 효율적 관리
 - 지역특성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3건)
 - 기존 사업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 34개사업 103개 제공기관
- 우수사례 발굴 홍보
 - TJB “생방송 투데이” 출연, 거리캠페인, 뉴스레터 제작(매월) 홍보

■ 대전광역시 위탁사업 추진 ■

1.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 추진

- 대전역 주변(삼성동, 원동, 정동) 쪽방생활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추진 / 241가구 251명
 -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 도배(87세대), 장판(80세대), 창호(49세대), 판넬·단열(11세대), 지붕누수(15세대) 등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욕구조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글교실 운영(10명), 치과보철(22명), 여행바우처(30명), 밀반찬제공(61세대) 등
 - ※ 현재 128명에 대한 밀착형 통합사례관리 / 유급 자원봉사 사례관리자 활용(2명)
-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단 구성 운영 및 관계기관 점검회의 주1회 개최 / 추진상황 중 간점검을 위한 포럼(7.10)
 - ⇒ 타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 개발, 정책적 시사점 연구
 - ⇒ 사업 인계를 위한 “쪽방상담소” 등 기능 강화 추진 (시와 협의)
 - ⇒ 문화, 평생교육의 기회부여 및 주민참여 확대

2.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에 관한 연구

- 시설정원 충원을 저하에 따른 유휴시설의 기능전환 필요
- 기본계획 수립, 공동연구자 위촉 등 기초 마련
- 타시도 사례 수집, 설문조사(670명), 시설장 면접조사(12명)
 - ⇒ 설문조사 결과와 타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 방안 제시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수립

-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대전시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심층 분석, 타시도 선행연구보고 검토
- 거주시설 장애인 실태조사(4개분야, 160명)
 -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수립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대전복지재단의 향후 과제와 역할



① 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본 입장

○ 정책연구 및 개발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연구
- 복지현장에서 도출되는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

○ 사업

- 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위주
- 사업의 설계와 일정 기간 시범운영으로 사업의 틀을 완성한 후 관련기관에 인계

② 협조와 지원

-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회복지시설 및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

③ 연결

- 민과 관, 민과 민의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역량의 극대화
- 항상 복지현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

부록 Appendix

- 1 감사패 수여대상자
- 2 2012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수상작
- 3 2013 사회복지사업 제안 우수작



대전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Daejeon Welfare Foundation
the 1st anniversary celebrations and open forum

감사패 수여대상자

연번	성명	직 책	공 적(도움) 내 용	비고
1	석선희	은총섬김교회 목사	•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적극 참여 – 쪽방마을 무료 전기점검, 방역 소독 및 도시락 배달, 무료 급식	
2	강숙영	쪽방마을 한글교육 강사	•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적극 참여 – 쪽방 거주 어르신 대상 주1회 무료 한글 교실(한글배움터) 운영	
3	윤일송	윤일송치과 원장	•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적극 참여 – 쪽방마을 어르신 2명에게 무료 틀니치료 제공	
4	권육상	대전센터 정형외과병원 대표원장	• 나눔과 상생의 복지만두레 술선 실천 – 병원 개원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백미 2000kg 재단 기탁	
5	송병월	기운차림봉사단	• 쪽방마을 사랑나누기사업 적극 동참 – 쪽방마을 주민들에게 주1회 무료 밑반찬서비스 자원봉사 실시	
6	최왕규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 2012 한밭나눔대축제 적극 협조 – 어린이들에게 무료 승마체험 기회 제공	
7	오진화	아뜰리에 드 망고 대표	• 2012 한밭나눔대축제 적극 협조 – 어려운 이웃 5쌍에 대해 무료 합동결혼식 및 웨딩쇼 진행	

2012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수상작

연번	시 상	기 관	제 목	내 용
1	대 상	생명종합사회 복지관	‘판암골소식’ 마을신문 주민기자단	주민·학생기자단 운영, 마을신문 제작 등 주 민조직화 사업
2	최우수상	대전기독교사회 복지관	행복한 노(NO)후(後)만들기	안마침술, 수중운동, 치매예방교육, 특별문화 체험 등 통합서비스 제공
3	"	한밭종합사회 복지관	“월평2동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위크숍,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등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4	"	사회복귀시설 한울타리	정신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사업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밀반찬 제공, 김장나눔, 환경개선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전개
5	우 수 상	시립장애인종합 복지관	“ 愛 Tea 터 ” 꿈을 만드는 바리스타! 변화하는 이미지메이킹!	이미지메이킹, 바리스타 교육, 직업능력강화 훈련 등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역량강화 프 로그램
6	"	판암사회복지관	민들레가족	성인장애인에게 치료와 교육, 예절교육, 급식 서비스, 문화체험 등 사례관리
7	"	송강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이 만들어 가는 “구즉 한마당”	구즉한마당 개최, 김장나누기, 지역특색탐색 등 실천활동
8	"	정림종합사회 복지관	“햇살 그리고 새싹”	유아와 노인 연계를 통한 1·3세대 소통 프 그램(체육활동, 명절행사, 환경캠페인 등)
9	"	법동종합사회 복지관	“Together 라온하제 (함께 즐거운 내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임신육아교육, 자조모임, 현장학습 등)
10	"	아동양육시설 성심원	성심야구단의 비상	전국 아동양육시설 최초로 야구단의 출범을 통 해 시설아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야구단 운영

2013 사회복지사업 제안 우수작

연번	시 상	성 명	제 목	내 용
1	최우수상	박 수 진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 사업수행 (인프라 구축 운영체계, 매뉴얼 개발)
2	우 수 상	김 학 만	어르신 실종 예방 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돌봄시계, 목걸이, 팔찌착용
3	"	박 세 용	장애인 편의·문화공간 지도제작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식당, 문화공간, 숙박시설 등 지도제작
4	장 려 상	박 금 주	창업지원사업 희망e가득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에 체험콘텐츠, 문화공연, 카페 등 창업지원
5	"	모 영 은	대전 장애인 합창대회	장애인 50%이상 구성된 합창대회 개최
6	"	이 정 만	복지펀드조성	저소득층, 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펀드 조성
7	"	이 규 인	아이와 엄마의 행복드림 복지정책	돌봄서비스, 예방접종, 장난감대여, 아침밥 제공
8	"	장 승 미	대전 사회복지엑스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
9	"	김 봉 구	이주 외국인 건강권 확보 프로그램	이주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10	"	유 선 아	고령자의 이동권사업 및 인적자원 리스트 확보	실버택시운영, 은퇴한 고령자 목록 작성 관리
11	"	유 성 호	시각장애인 블로그 기자단 “가봐유”	장애인 블로그 기자단 조직·운영
12	"	한 창 용	휴먼링크를 통한 복지인식 증진	사람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식개선 증진 (대학-복지기관-학교-주민센터-언론)
13	"	남 성 리	장애인 인식개선 테마학습장	북카페, 감각놀이터, 장애인식개선센터, 동물체험 학습장 등 운영